

# 초등, 중등, 고등학생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

- 수용성과 거부성을 중심으로 -

전 영 주(신라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족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적 기능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규제하는 교육적 기능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반 세기동안 진행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자녀양육과 교육의 책임 중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게 넘겨졌고 아버지는 바쁜 직장일과 사회생활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권위가 쇠퇴하는 가운데 가족생활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광범위하게 연구된 것에 비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직계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에서 아버지도 양육역할을 분담할 것이 요구되면서 (위영희, 1983) 육아와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요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아버지 역할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닌 민주적인 아버지 역할모델로, 남성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아버지상에 적응해야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좋은 아버지 역할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의 모임이 증가해왔다. 학문적으로도 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 대해 차별화된 부모역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희, 2005). 아버지는 남아의 남성성에 관심을 더 가지므로 여아보다 남아에 대해 더 부모로서 책임을 느끼고 아들과 더 많은 공유영역을 갖으며 아들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이성희, 한은주, 1998). 또한 아들 역시 성역할모델로서,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과 변화를 겪으며 연결된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행동의 핵심적 측면인 온정(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남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의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핵가족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의 태도를 조사하여, 발달단계와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발달단계에 따라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 1.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관계

Erikson의 8단계 사회심리발달이론과 가족발달이론에 의하여 개인적 측면의 발달과 관계적 측면의 아버지-아들의 발달을 간단하게 고찰하겠다. 우선 Erikson의 발달단계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는 4단계인 잠복기(아동기)와 5단계인 생식기(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잠복기는 심리성적으로는 비활동적 시기이나 기초적 지적기술을 습득하고 가족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넓히며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기초기술을 숙달시키는 등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근면성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발달의 과업은 아동의 활동을 충족시키고 학교에서의 성취를 격려하는 것이다. 아동기 후기로 갈수록 남아에 대한 아버지의 성역할 모델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아동이 12세경이 되면 부모-자녀 관계도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생식기는 정체감 위기의 시기로 규정된다. 사춘기의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 요구에 따라 아동들은 당황하고 자신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지금까지 발달해온 자신의 것을 통합하여 정립하고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게되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반면, 자기에 대한 의문과 회의,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면 역할혼미 또는 정체감 혼미로 남아 다음 단계에서도 미성숙 상태와 방황이 계속된다(최경숙, 2000). 이 시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의존단계로서 자녀행동에 대한 허용과 통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체감을 수용하고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해나가며, 거리감 유지를 다루어야 하고, 자녀와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한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Erikson의 7단계 생산성 단계는 직업을 통한 사회발전의 기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양육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산적 아버지 역할은 단순한 부양자 역할을 넘어 자녀의 발달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임무까지 확장된다(Gerson, 1997, 김진희(2005)에서 재인용). 특히 남아를 가진 아버지는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나가며, 자녀가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격려와 온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30대 아버지들은 40대나 50대 아버지보다 자녀와 관련된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즉 젊은 아버지일수록 전통적 성역할에 덜 구애되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5).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연령이 젊은 아버지들이 직업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더 적다고 하였다(양미경, 1996).

## 2. 아버지 역할

어느 사회나 어머니는 직접적인 양육과 교육의 전담자이고 아버지는 주변인물에 불과한 존재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 발달과 사회화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외국의 경우 80%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남성의 실제 가족역할 수행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김진희, 2005) 이는 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은 높으나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상태로서,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가치, 규범, 신념이 빠르게 변화되는 반면, 아버지의 직업세계의 변화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서혜영, 1999).

아버지 역할은 자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좋은 모성환경을 조성하도록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통적 시각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객관성과 야망, 권위, 모험, 질서, 절제, 관용, 인내와 같은 덕목을 가르치기에 알맞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유안진, 김연진, 1997). 특히 남아의 경우 아버지를 통해 객관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넓은 안목을 갖게 된다. 또한 직업선택이나 전공 선택,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버지는 냉철한 시선으로 사려 깊게 보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권위와 도구적 모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적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녀의 일상에 세심한 보호를 제공하는 양성성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부자관계에 따라 남아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김광웅(1978)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간의 심리적 관계나 물리적 접촉시간에 따라 아동의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사회성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김연진(1997)에서 재인용).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버지가 시간 나는 대로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나누는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네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성실조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성실조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더 공격적이며, 사회적 일탈이 높으며, 어머니와 더 밀착되어있고 정서적으로 혼란되어 있다고 하였다 (유안진, 김연진, 1997).

## 3. 부모의 수용 대 거부 의미

1930년대 이래 부모-자녀관계의 연구는 부모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 중 온정과 통제 의 두 차원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두 차원 중 수용/온정의 차원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졌다(김성일, 1997). 부모역할 중 따뜻함, 즉 수용적 태도는 아동기동안 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최경숙, 2000).

부모의 수용은 온정, 지지, 사랑 등의 표현으로 불리우나 의미는 거의 같다. 수용성은 부모가 아동에게 하는 반응과 애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뜻하고 반응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웃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애정표현을 하면서 비판한다.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양육자에게 안정애착이 되어있으며, 학령기 동안 유능한 학생으로 안정된 학업성취와 평균이상의 지능검사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와 또래관계가 원만하며, 자존감과 역할수행기술이 높고, 벌에 대한 공포보다 내면화된 기준에 의한 도덕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최경숙, 2000).

한편 거부성은 적대감과 공격, 무관심과 소홀의 형태로 나타난다. 거부적인 부모는 냉담하고 무반응적이며 폭언, 구타, 저주를 하며, 자주 자녀를 비판하고 벌을 주거나 무시한다. 거부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사랑받고 있거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최경숙, 2000). 거부적인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좌절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민감하고 신체적 건강문제가 많다. 지능지수가 낮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이 낮으며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높지 않고, 인생 후기에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Rohner(1990)는 1930년대 이후 수행된 부모의 수용과 거부에 대한 800여개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모의 거부가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 적개심, 비행, 대인관계장애, 정서불안정, 부정적 세계관과 같은 성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김성일(199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중, 고, 대학생 2,031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수용도를 조사한 김성일(199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공격성, 정서적 무반응, 정서불안정 등의 영역에서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수용도는 여아일수록,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의존성의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의 수용성과 거부성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 발달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용성 자체는 거의 모든 자녀의 성장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고 잘 적응된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따뜻함과 온정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수용성은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신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600명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각 발달단계별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 실수로 잘못 기재된 용어와 이해가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 6일에서 7월 11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었다. 표집 지역은 부산의 신시가지 2지역(화명동, 해운대 신시가지)을 선정하여, 화명동 신시가지에서는 Y초등학교, M중학교, H고등학교를, 해운대 신시가지에서는 C초등학교, Y중학교, Y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각 학교별로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에, 각 학년 주임선생님을 통해 각 반별 남학생들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학교에 따라 바로 회수하거나 이튿날 회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지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발달단계별로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이며 각 설문지마다 지역과 발달단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ID)를 부여하였다. 배포된 총 설문지는 600부였고 그 중 58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혼, 별거, 동거, 사별, 재혼의

가족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켜 총 533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수용성/ 거부성 척도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84)가 고안한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본래 60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본고에서 사용한 것은 Donovan(1991)이 개작한 4점척도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판으로 10 문항의 수용성 하위척도와 14문항의 거부성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PARQ는 신뢰도와 구인타당도가 높고 이론에 잘 기반되어 있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일관도는 .83~.96, 한국의 연구에서는 .95~.96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 2) 인구사회학적 변수

설문에는 응답자의 출생순위,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요하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 3. 자료분석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고, 여기에서 추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분석을 하였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또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 인구학적 변수들에 등급에 따라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ANOVA 분석과 추가적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표 1>에 정리되어있다. 본인 포함한 형제수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2명이라고 했으며, 종교는 “종교없음”이 40%로 가장 높았다. 신시가지의 지역적 특징 때문인지 응답자 대부분 부모의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은 64%정도가 대졸 이상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인 가장 많았고(36.4%) 전문기술직(19.7%), 판매직(15.6%), 행정관리직(10.5%)의 순이었다.

<표 2>를 보면 아들의 발달단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아버지의 수용성/거부성에 대한 상관관계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는 수용성과 거부성 모두와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아버지의 연령대와 아들의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은 수용성과만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533)

변 수	사회적 특성	빈 도(%)
발달단계	초등	183(34.3)
	중등	174(32.6)
	고등	176(33.0)
거주지역	화명동	268(50.3)
	해운대	265(49.7)
본인 포함한 형제수	1명	46( 8.6)
	2명	421(79.0)
	3명	64(12.0)
	결측값	2( .4)
출생순위	외동이	45( 8.4)
	첫째	253(47.5)
	둘째	193(36.2)
	셋째	33( 6.2)
	결측값	9( 1.7)
아들의 종교	기독교	113(21.2)
	천주교	34( 6.4)
	불교	157(29.5)
	무교	215(40.3)
	기타	13( 2.4)
	결측값	1( .2)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1( 2.1)
	100만원~199만원	52( 9.8)
	200만원~299만원	107(20.1)
	300만원~399만원	101(18.9)
	400만원~499만원	71(13.3)
	500만원~599만원	48( 9.0)
	600만원 이상	74(13.9)
	결측값	69(12.9)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13( 2.4)
	고졸	118(22.1)
	전문대졸	25( 4.7)
	대졸	194(36.4)
	대학원 졸업이상	147(27.6)
	결측값	36( 6.8)
아버지의 직업	무직 및 전업주부	2( .4)
	생산기능직	31( 5.8)
	서비스직	32( 6.0)
	판매직	83(15.6)
	사무직	194(36.4)
	행정관리직	56(10.5)
	전문기술직	105(19.7)
	기타(시간제 등)	1( .2)
	결측값	29( 5.4)
아버지의 종교	기독교	80(15.0)
	천주교	30( 5.6)
	불교	216(40.5)
	무교	188(35.3)
	기타	14( 2.6)
	결측값	5( .9)

<표 2> 주요 인구학적 변수와 수용성/거부성 간의 상관분석

	수용성	거부성
아들의 발달단계	.30**	.11**
아버지 연령대	.11*	.07
아들의 출생순위	-.10*	-.02
부모의 월평균 수입	.00	-.01
아버지 학력	-.13**	-.07

\*p<.05 \*\*p<.01

### 1.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은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 점수의 평균값은 아들의 발달단계가 높은 집단일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 수용성 지각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 $F=30.25, p<.001$ ). <표 4>에서 보듯이 Tukey와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사이에 특히 큰 차이가 보이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거부성 영역도 수용성과 마찬가지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F=7.24, p<.001$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두드러진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표 3> <표 4> 참조).

<표 3>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의 분산분석

		N	평균	표준편차		SS	df	MS	F
수용성	초등	183	18.75	4.75	집단 - 간	1796.95	2	898.48	30.25***
	중등	186	21.99	5.45					
	고등	186	22.97	6.06					
	Total	555	21.25	5.73					
		초등	평균	표준편차		SS	df	MS	F
거부성	초등	182	24.95	6.59	집단 - 간	826.75	2	413.38	7.24***
	중등	184	27.84	7.64					
	고등	186	27.09	8.32					
	Total	552	26.63	7.64					

\*\*\*p<.001

<표 4> Tukey, Scheffe 사후검정

종속변수		(I)발달단계	(J)발달단계	평균차(I-J)	표준오차
수용성	Tukey HSD	초등	중등	-3.25***	.57***
			고등	-4.22*	.57**
		중등	초등	3.25*	.57***
			고등	-.97	.57
		고등	초등	4.22*	.57***
			중등	.97	.57
	Scheffe	초등	중등	-3.25*	.57***
			고등	-4.22*	.57***
		중등	초등	3.25*	.57***
			고등	-.97	.57
		고등	초등	4.22*	.57***
			중등	.97	.57
거부성	Tukey HSD	초등	중등	-2.90***	.79**
			고등	-2.15*	.79*
		중등	초등	2.90*	.79***
			고등	.75	.79
		고등	초등	2.15*	.79*
			중등	-.75	.79
	Scheffe	초등	중등	-2.90*	.79**
			고등	-2.15*	.79
		중등	초등	2.90*	.79**
			고등	.75	.79
		고등	초등	2.15*	.79*
			중등	-.75	.79

\*p<.05 \*\*p<.01 \*\*\*p<.001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 수용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아들의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대,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에 대한 ANOVA 실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들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61, p<.05$ ), 외동아이의 경우에 아버지의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대 또한 수용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82, p<.05$ ), 26~30세와 46~50세 연령대의 아버지들의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61, p<.05)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수용성은 낮았다(<표 5> 참고).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성에 대한 분산분석

아들의 출생순위									
		N	평균	표준편차		SS	df	MS	F
수 용 성	외동이	48	22.69	4.73	집단 - 간	335.60	4	83.90	2.61*
	첫째	255	21.41	6.02					
	둘째	206	20.53	5.58					
	셋째	34	21.32	4.48					
	Total	544	21.16	5.70					
아버지의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SS	df	MS	F
수 용 성	26~30세	3	22.33	4.93	집단 - 간	548.57	6	91.43	2.82*
	31~35세	2	20.50	2.12					
	35~40세	37	19.24	5.68					
	41~45세	269	20.72	5.76					
	46~50세	193	22.23	5.64					
	51~55세	44	21.73	5.60					
	56세 이상	1	10.00						
	Total	549	21.22	5.75					
아버지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SS	df	MS	F
수 용 성	중졸이하	16	24.44	6.90	집단 - 간	343.03	4	85.76	2.61*
	고졸	123	22.08	5.28					
	전문대졸	25	21.88	5.39					
	대졸	202	21.01	5.30					
	대학원 졸업이상	149	20.54	6.53					
	Total	515	21.28	5.77					

\* p<.05

## V. 논의

본 연구는 부산시 신시가지에 거주하는 핵가족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의 양육태도를 설문조사하여,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최종분석에는 533명의 응답만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 집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 또한 고등학생 집단보다 수용성 지각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거부성 또한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몇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수, 즉, 아들의 출생순위, 아버지의 연령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도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외동 아들일 때, 아버지의 연령대가 20대거나 40대 후반일 때,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수용성과 거부성 두 영역에서 모두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생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전환기에 아버지-아들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되나, 청소년기의 전기와 후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달단계가 낮을수록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의 두 영역 점수가 모두 높은 반면, 발달단계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이 모두 낮은 것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아들이 갖는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또는 독립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

한편 외동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이 높은 이유는 하나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양육태도의 반영일 것이다. 아버지의 연령대가 아주 젊거나 반대로 높을 때 아버지의 수용성이 높다는 결과는 아버지 연령과 양육태도에 대한 기존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아버지들은 가장 활발한 직장생활로 아들과 온정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운 반면, 차라리 매우 젊은 아버지들이나 나이가 든 아버지들은 아들과의 질적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수용성이 높게 지각된 점은 다소 놀랍다. 아버지의 학력이 가장 높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아들이 지각하는 수용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통적 핵가족(intact family)만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는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만 제한한 점과 대도시의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의 특성상 중산층의 특징이 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중산층 핵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설명에만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2인(dyad)관계 연구에서 아버지를 배제한 아들의 지각에만 의존하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세대연구에서 각 세대가 지각하는 관계는 차이가 있다는 기존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장래의 아버지와 아들관계 연구는 양쪽의 응답을 모두 수집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성일(1997).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5(3), 39-65.
-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87-101.
- 위영희(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동학회지*, 4.
- 유안진 · 김연진 (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성희 ·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 23-39.
- 최경숙(2000). *발달심리학-아동, 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가정복지 세미나 자료집*, 35-80.
- Rohner, R. P.(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University of Connecticut,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